

## 감수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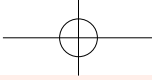
‘청출어람 靑出於藍’.

부모보다 뛰어난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이 책의 감수를 부탁받고 처음 떠오른 표현이다. 내 강의를 들었던 제자인 서연경 학생이 교수가 되어 이런 놀라운 저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상황에 꼭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마치 징징거리던 아이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필요를 제대로 챙겨줄 때의 기분만큼 생경하고 흐뭇하고 축복하고픈 복합 감정이 들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명확하다.

우선 수준이 높다. 시중에 흔한 데이터베이스 개론서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매우 깊이가 있다. 요즘은 누구나 DB를 아는 시대이므로, 단순 SQL 문들은 금방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동영상과 강의 자료가 널려진 시대이다. 그만큼 DB 기술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IT 기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론서 그 이상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세부적인 고급기능으로는 트리거(Trigger), 저장 프로시저(Stored Procedure), 로그 관리(Log management), 암호화(Encryption) 등의 기능들까지 예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한 책은 아직 없다. 국내에도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 이러한 깊이와 디테일은 공저자인 나익수 교수님의 실무경험에서 열매 맺은 것임은 자명하다.

MariaDB를 선정한 것도 상업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다. 과거 MySQL이 상당히 영성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왜 많이 사용되었는지 그 이유와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DBMS 시장의 절대강자인 오라클이 MySQL을 흡수한 이유와도 같다. 무료인 MySQL이 오라클의 시장 확대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MySQL을 죽이려고 큰 비용을 들였던 것이다. MariaDB는 바로 당시 MySQL 개발자들이 퇴사하여 만든 DBMS이므로 앞으로 사용자가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저렴한 DB는 시장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 그룹, 기술 자문, 분야별 사례관리, 교육창업 등의 연관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게 될 현상은 DB의 필수성만큼이나 확실하다.



감수자 본인은 DB lover이다.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DB 소사이어티의 회장을 역임했고, IEEE 데이터 과학 분야(TCDE) 현직 최고 기술 위원회 한 명이므로 감수를 의뢰받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본인은 DB 관련 이론과 기술 동향에 관심이 많다. 정말 DB를 사랑하고 그중에서도 데이터 설계에 매혹되어 있다. 곧 발간될 나의 저서, “데이터 디자인”과 보완관계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가슴이 울렁거리는 책이다. 다만 미욱치 못한 감수자의 참여가 본서의 가치를 훼손치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로 놀라운 깊이를 갖추었고, 앞으로 시장성이 폭발할 MariaDB를 선점했기 때문에 매우 장래가 밝다. 소장 도서로 강추한다.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우기 교수